HYUN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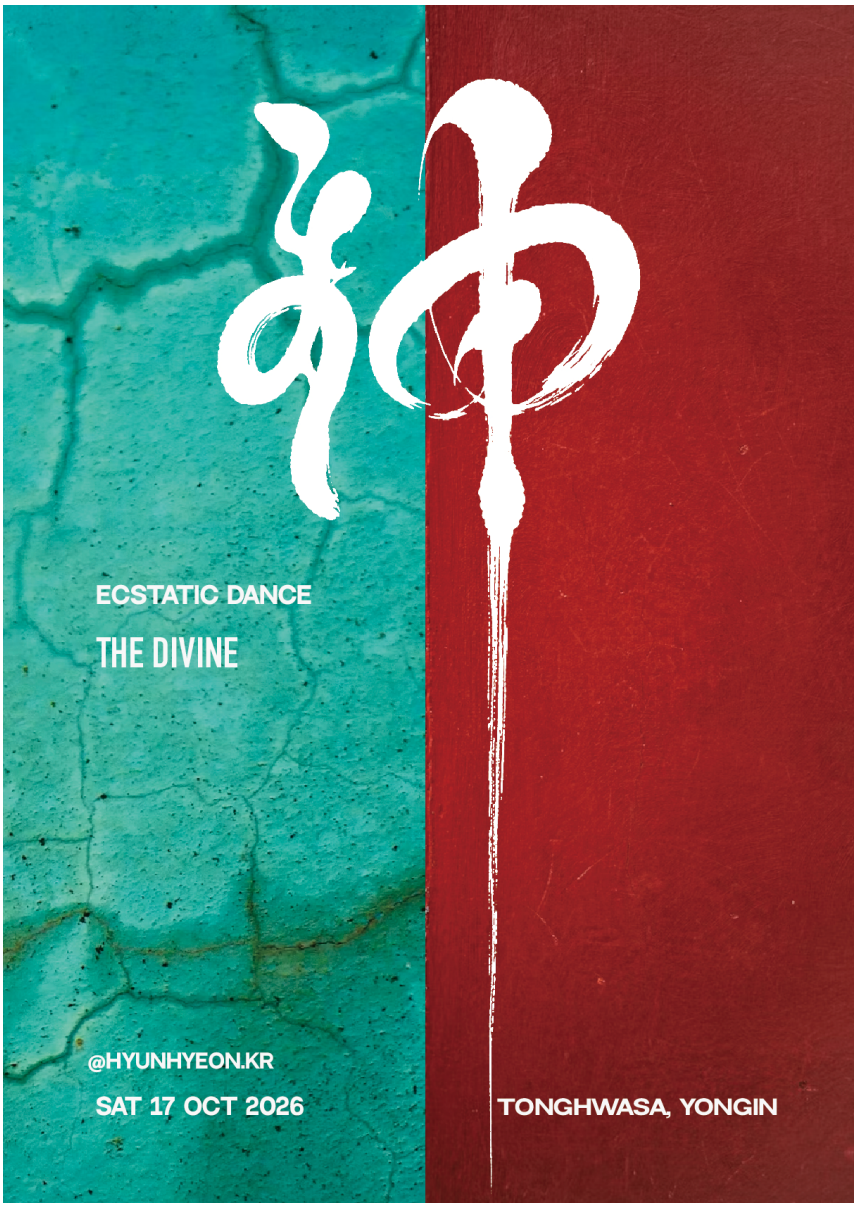
神

THE DIVINE

SPACE / VENUE PROPOSAL

CEREMONY · PERFORMANCE · MOVEMENT · SOUND

2026.10.17 SAT
SEOUL & METROPOLITAN AREA



02. ABOUT HYUNHYEON





The unseen reveals itself.

현현은 몸과 감각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세레모니를 설계하는 크리에이티브 팀입니다.

사운드, 움직임, 공간을 주요한 매체로 삼아 명상, 퍼포먼스, 감각적 경험과 공간 연출을 결합하고, 참여자가 단순한 관객으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몸과 감각을 통해 경험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장을 만듭니다.

몸과 감각을 통해 자신과 연결되고, 타인과 공동체를 만나며, 우리가 속한 자연과 더 큰 생명의 흐름을 다시 감각하기 위한 동시대적인 의례의 장을 탐구합니다.

Ecstatic Dance는 이러한 감각 기반의 세레모니를 구현하는 현현의 주요한 형식 중 하나입니다.

각 프로젝트의 주제와 장소에 따라 Opening Ceremony, Performance, Meditation, Movement & Sensory Facilitation, Sound, Object, Spatial Direction 등을 하나의 연속적인 경험으로 구성합니다.

03. PROJECT — 神, THE DIVINE

본 프로젝트는 특정 종교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젝트입니다.

〈神, THE DIVINE〉은 인간과 자연, 몸과 삶에 깃든 신성에 대한 예술적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작업은 이 질문을 우리가 나고 자란 한국이라는 땅과 그 안에서 이어져 온 오래된 의례의 감각으로부터 바라봅니다.

한국의 무속과 샤머니즘에는 인간과 자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리하기보다 춤과 소리, 몸짓과 공동체적 의례를 통해 서로 연결해온 오래된 세계관이 깃들어 있습니다.

현현은 이를 이국적인 이미지나 신비주의적 태도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래된 의례 안에 담긴 공동체적·생태적 감각과 몸과 삶에 깃든 신성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의례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특정 종교적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정신과 관계의 방식을 존중하며 오늘의 몸과 감각으로 다시 만나는 동시대적인 의례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神, THE DIVINE〉은 Ceremony, Performance, Sound, Movement를 통해 신성을 몸과 자연, 관계와 공동체, 일상의 생명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경험을 제안합니다.

04. EXPERIENCE — ONE CONTINUOUS JOURNEY

Opening Ceremony → Performance → Movement & Sensory Facilitation → Ecstatic Dance → Cooldown → Closing

ARRIVAL / DOOR OPEN
참여자가 공간에 도착하여 일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자신의 감각에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OPENING CEREMONY
호흡과 명상, 감각적 안내를 통해 현재의 몸과 공간에 접속합니다. 참여자들이 하나의 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주제와 감각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PERFORMANCE
각 장의 주제를 몸, 사운드, 오브제와 행위 등을 통해 드러내는 수행적 요소입니다. 독립된 관람의 대상이라기보다 참여자의 경험과 장의 흐름을 전환하거나 확장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MOVEMENT & SENSORY FACILITATION
간단한 움직임과 감각적 제안을 통해 참여자가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기보다 자신의 몸에서 발생하는 충동과 움직임을 발견하도록 안내합니다.

ECSTATIC DANCE
DJ의 실시간 사운드 큐레이션과 함께 참여자가 정해진 안무 없이 자신의 몸과 감각을 따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Ecstatic Dance는 현현이 설계하는 감각 기반 세레모니를 구현하는 주요한 형식 중 하나입니다.

COOLDOWN
고조된 음악과 움직임의 밀도를 서서히 낮추며 고요함으로 이동합니다.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경험을 통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환의 시간을 둡니다.

CLOSING
침묵과 호흡을 통해 지나온 경험을 몸 안에 머물게 하고, 열렸던 장을 함께 닫으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05. SPACE AS A MEDIUM

현현에게 공간은 행사의 배경이 아니라 작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매체입니다. 장소가 가진 역사, 건축, 자연환경과 물성을 존중하며 그 장소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구성합니다.

과도한 구조물이나 장식을 설치하기보다 사운드와 빛, 사람의 몸과 움직임을 통해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감각을 드러내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공간 구성

- Main Movement Area
- Performance Area
- DJ / Sound Area
- Entrance / Reception
- Rest / Quiet Area
- Staff / Equipment Area
- Documentation Position

공간과 참여자,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 특정적(site-responsive) 경험을 지향하며, 구체적인 동선과 연출은 장소 확정 후 현장 답사를 거쳐 협의합니다.

06. OUR WORK

2025.11.2 · <Cosmic Flow> Yeonhui Jungeum × Your Bottle Week ,Seoul, Korea

2026.1.21 · <Ecstatic Dance> Gaia Beats Festival, Chiang Mai, Tahiland

2026.7.26 · <Epipany> Brickwell × The Wellness Korea, Seoul, Korea

Ceremony · Ecstatic Dance · Movement · Sound

명상과 움직임 가이드로 감각을 열고, DJ의 사운드 큐레이션과 함께 자유로운 움직임의 장으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Space Holder와 Facilitator, 운영 스태프가 현장에 함께하며 전체 장의 흐름과 참여자의 경험을 지원했습니다.

운영 원칙: Barefoot · No Drugs · No Alcohol · No Phone

첨부사진: Brickwell & The Wellness Korea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EPIPANY’











07. OPERATION & SAFETY

현현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함께 서로의 몸과 경계를 존중하는 안전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No Drugs · No Alcohol · No Phone
- 참여자의 자율적 참여와 중도 휴식 보장
- 신체적·심리적 경계 존중
- Space Holder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장의 흐름을 홀딩
- Facilitator와 운영진이 참여자의 상태와 공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
- 출입·비상구·대피 동선 및 공간 위험 요소 사전 점검
- 시설 안전관리 지침 우선 적용 및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
- 필요 시 행사보험 및 별도 안전관리계획서 협의

08. TECHNICAL / VENUE REQUIREMENTS

예상 참여 인원: 약 40–60명 / 약 50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Open Floor 희망

Technical

- DJ Controller 또는 Player / Mixer
- PA Speakers / Monitor Speaker / 필요 시 Subwoofer
- Audio Interface 및 Cable
- 필요 시 이동식 Lighting
- DJ·음향·조명 운용을 위한 Electricity

Venue / Operation

-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 오후 설치 및 준비 → 저녁 프로그램 → 당일 철수
- 외부 음향장비 반입 가능 여부 및 허용 음량
- 유료 참여 프로그램 가능 여부
- 퍼포먼스 및 자유로운 움직임 가능 여부
- 설치·철수 및 차량/장비 반입 동선
- 화장실 / 운영진 대기 공간 / 주차
- 촬영 가능 범위
- 우천 시 운영 조건
- 시설물·문화재 보호 규정
- 행사보험 및 안전관리계획서 필요 여부

09. TEAM / CONTACT

Director — 배서영
프로젝트의 전체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합니다.

Art Director — 배희준(하르샤)
프로젝트의 시각적·공간적 방향을 설계하고, 주제와 공간이 하나의 감각적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술적 경험 전반을 구성합니다.

Moderator — 정소영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흐름을 연결하고 장을 홀딩합니다. 각 프로그램과 전환의 순간이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조율합니다.

Facilitator — 배서영 · 배희준 · 정소영
각 장의 주제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임, 명상과 감각적 경험을 안내하며, 참여자가 자신의 몸과 감각에 접속해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DJ — 전혜준(피존)
프로젝트의 주제와 전체 여정을 바탕으로 음악을 큐레이션하고 현장의 움직임과 공간의 흐름을 감지하며 사운드의 밀도와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Sound Engineer — 이철민
공간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흐름에 맞추어 현장 음향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Photographer — 미정
프로젝트의 공간과 참여자의 움직임, 현장에서 일어나는 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Staff — 현민 · 주연
입장 및 참여자 안내, 공간 운영, 현장 진행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지원합니다.

CONTACT

Project	神, THE DIVINE
Date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Instagram	@hyunhyeon.kr
Homepage	hyunhyeon.com
E-mail	hello@hyunhyeon.com
Project Contact	배희준/010-5099-0064

The unseen reveals itself.